

제목	N이 라면을 고르는 법
기획 의도	MBTI가 유행하는 요즘, N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라면을 사는데 머리에서 거치는 다양한 망상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면서 풍부한 상상력을 가진 N에 대해 말하고 싶어 기획하였습니다.
로그라인	라면을 빼앗아간 작은 조직에게 복수하는 이야기.
캐릭터 설정	
김친근 (남/24세)	보통 체구이다. ENFP 망상을 잘하지만,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빠르다. 판단력이 좋고, 언제나 결정을 잘 내린다. 평소에는 덜렁거리는 부분이 있지만, 분노하게 되면 오히려 침착해지고, 냉철하게 판단한다. 망상이 있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현실적인 판단을 잘 내린다.
이친구 (남/24세)	매우 현실적인 친구. 친한 친구인 친근이 상상에 빠지는 것을 잘 이해할 수 없다. 그렇지만, 그닥 신경을 쓰는 편은 아니고, 친근과 같이 있는 게 좋다.
엑스트라	유악당, 자전거
시놉시스	
<p>친구랑 친근이 방독마스크를 쓰고, 황무지를 걸어간다. 그리고 나래이션이 나온다.</p> <p>친근과 친구가 같이 라면을 고르고 있다. 친구가 먼저 계산을 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친근이 친구를 잡는다. 친근이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문 사이로, 숟가락을 내민다. 날아온 총알에 숟가락을 놓친다. 저격수가 대기 중인 것을 알고, 친근이 계산을 하기 시작한다. 계산이 끝나자, 젓가락을 내밀어 다시 한 번 오발을 유도한다. 오발 사건 이후, 친근과 친구가 사각지대인 골목으로 재빨리 들어간다.</p> <p>친구가 라면을 들고, 앞장서서 간다. 그러다가 낌새가 이상함을 느낀 친근이 같이 가자고 하지만, 검은색 차가 와서 친구를 납치해간다. 친근이 라면을 훔쳐간 사실에 큰 분노를 느낀다.</p> <p>친근이 집으로 들어온다. 분노하면서 벽을 치거나, 걸려있는 옷을 집어 던진다. 그러다가, 강보스로부터 전화가 온다. 전화 내용은 라면과 생수를 교환하자는 내용이다. 친근이 훈련을 한다. 라디오에서는 바깥 상황에 대한 뉴스가 가끔 흘러나온다. 어느덧 준비가 끝난 친근이 준비를 하고 집을 나선다.</p> <p>한강에 친근이 몸을 숨기면서 주위를 살피면서 움직인다. 그리고 거래하는 유악당과 만난다. 물을 건내주고, 화장실을 확인하려는데, 유악당이 맛을 보고 밭으면서 이거 생수 아니잖아 하고 노려보자, 친근이 머리에 총을 쏴버린다. 친근이 화장실을 열었는데, 거기에는 라면은 없고 친구가 묶여있다. 친근이 분노하며, 머리에 총을 쏴서 죽여버린다.</p> <p>분노하는데, 그때, 친구의 전화기가 울린다. 전화를 받자 강보스가 거래가 불발되었다며 라면을 받고 싶으면 본거지로 오라고 한다. 친구가 명대사를 한 마디하고 본거지로 출발한다. 차를 타려고 갔는데, 차 문이 안 열려서, 자전거 타고 가는 자전거씨의 자전거를 빼앗아서 타고 간다.</p> <p>친근이 학교에 도착해서 지하주차장으로 걸어 들어간다. 강보스와 한바탕 총격전을 벌이고, 총알이 떨어지자, 붙어서 주먹으로 싸우기 시작한다. 얼마 안 되어 친근이 밀리자, 주머니에서 총을 꺼내서 강보스를 쏴 죽인다. 그리고 나서 라면을 찾아서 좋아한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다가와 뒤통수를 때린다. 친근이 뒤통수를 맞으면서 배경이 편의점으로 바뀐다. 친근의 친구인 친구가 뒤에서, 라면 빨리 고르라며 독촉한다. 그러자 친근이 불닭볶음면을 챙겨가다가, 다시 돌아와 카메라 앞에 두고, 라면은 역시 신라면이지 하면서 끝난다.</p>	